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양 영 주
전북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전기무문토기의 분석 |
| II. 연구약사 | V.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특징 |
| III.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은 많지 않다. 文化樣相은 1990년대 후반 가락동식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익산 영등동유적과 혼암리식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남원 고죽동유적이 조사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순창 원촌, 전주 성곡·효자(4)·장동·마전, 김제 제상리, 완주 구암리, 익산 용기리 등에서 돌대문토기,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조사되면서 전북지역 전기문화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토기를 통해볼 때 남원 고죽동은 혼암리식토기, 순창 원촌은 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가락동식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고는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전기 주거지에서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무문토기의 유형을 분류하고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약사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료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연구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국토개

발에 따른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양상이 확인되면서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전기 취락연구에 있어 주거지와 유물을 통한 편년을 토대로 취락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평면 정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와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미사리유형, 평면 (세)장방형에 위석식노지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는 가락동유형, 평면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와 공열문토기가 출토되는 역삼동유형, 평면 (세)장방형에 무시설식노지와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는 혼암리유형으로 분류하고(안재호 2006), 이에 대한 연구와 주거지의 형식분류를 통하여 주거지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락동 유형은 이형원¹⁾, 공민규²⁾, 역삼동·혼암리 유형은 허의행³⁾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형원(2002)은 중부지역 전기 취락 특히 가락동유형의 취락의 분석을 통하여 전기에 취락에 있어 계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공민규(2005)는 남한 지역 가락동유형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가락동식유형은 한반도 서북지역인 압록강~청천강유역 일원에서 확인되는 문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중부이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문화상을 통해 볼 때 주민의 직접적인 이주를 상정하였다. 허의행(2007)은 중부지역 전기 취락 가운데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취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규모가 가장 큰 백석동취락과 중형취락의 규모를 가진 불당동, 명암리 취락, 다시 그 아래에 중소형취락이 규모차에 의한 분포 및 계층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호남지역에서도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먼저, 김문국⁴⁾은 전기 주거지를 평면 형태와 내부구조의 속성을 중심으로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가락동유형은 호남지역에서 만경강·영산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은 섬진·보성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형으로, 만경강·영산강유역은 금강유역의 문화양상과 유사하고, 섬진·보성강유역은 서부경남지역과 문화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유구 또는 유물복합체를 사용한 집단들이 주거구조나 토기상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인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에 걸쳐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홍밖음⁵⁾은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호남 전역으로 크게 만경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1) 李亨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孔敏奎 2005, 「中西內陸地域 可樂洞類型的 展開」『松菊里文化를 통해본 農耕社會의 文化體系』, 서경문화사.

孔敏奎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韓國靑銅器學報』8號, 韓國靑銅器學會.

3) 허의행 2007, 「호서지역 역삼동·혼암리유형 취락의 변천」『湖西考古學』17, 호서고고학회.

4) 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홍밖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湖南考古學報』36, 湖南考古學會.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유역권으로 구분하고, 전기 유물 가운데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이 중구연단사선토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기주거지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탄소연대 값을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를 크게 4기로 세분하였다. 1기는 만경강유역권에 가락동식토기가 역삼동유형의 주거지에 등장하는 시기로 그 연대는 B.C. 13~12세기 전반, 2기와 3기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본격적으로 접촉·융화해 가면서 2기에는 영산강유역권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연대는 B.C. 12세기 후반~11세기, 3기는 섬진강유역권과 남해안지역 등 호남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규정⁶⁾은 호남지역을 북서부지역, 중서부지역, 중부내륙지역, 동부내륙지역, 남해안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는 지역에 따라 북서부·중서부지역은 가락동식 토기문화, 동부내륙·동남해안은 역삼동·혼암리식 토기문화와 관련되고, 중부내륙지역은 가락동식과 역삼동식·혼암리식 토기문화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통해 모두 3기로 분류하였는데 I기는 각목돌대문 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미사리유형과 이중구연 단사선문을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유형이다. II기는 가락동유형이 북서부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새롭게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등장하는 시기로, 가락동식 토기는 이중구연의 요소가 퇴화되지만 아직까지 이중구연의 요소는 남아 있다. III기는 (세)장방형 주거지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방형으로의 평면이 정형화 되며 노지는 설치되지만 III기의 가장 늦은 단계에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원형 송국리형 주거지가 등장하고 그 영향으로 방형 주거지에 설치된 노지가 사라지고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되는 등의 변화와 토기문양이 사라지는데 동부내륙과 동남해안지역과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역삼동식 토기의 특징인 공열문 요소가 늦은 시기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구제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또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축조한 집단의 문화적인 특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북지역은 금강유역의 靑銅器文化 파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적어도 일정한 시기에 지역을 달리하여 형성된 청동기문화가 한 지역으로부터 일방적인 파급으로만 보기에는 당시의 다양한 문화양상을 단순화 시키는 것으로 전파론에 입각한 문화해석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연구로 주로 이 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발굴자료가 급증하고 전기의 장방형주거지의 조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으로 송국리형주거지의 조사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반도 청동기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6) 김규정 201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특징」『韓國靑銅器學報』9號, 韓國靑銅器學會.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북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이러한 분류된 주거지가 지역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북지역을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II.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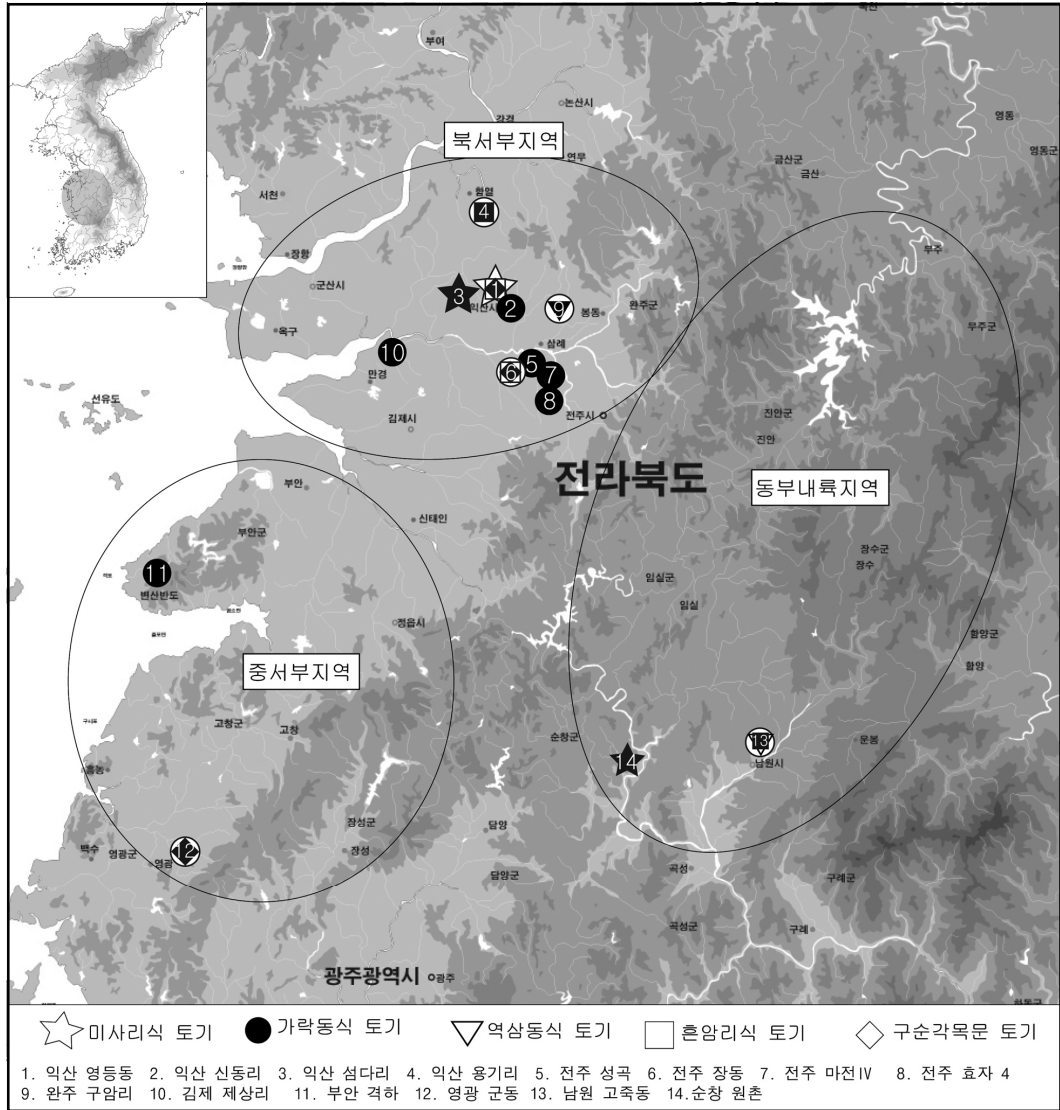
전북지역은 백두대간의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호남정맥을 중심으로 서부평야지역과 동부산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무문토기문화의 형성배경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평야지역은 낮은 구릉이 발달되고 너른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무문토기인들의 생활 근거지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외부로부터 방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대규모 취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로 구릉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인 취락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강변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취락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동부산간지역은 호남정맥을 경계로 대부분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을 포함하는 해발 600~700m 내외의 산간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이라는 두 개의 큰 하천의 상류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북서부지역, 중서부지역, 동부내륙지역 등 모두 3개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각 지역별 유적의 검토

1) 북서부지역

북서부지역은 북으로 금강정맥과 금강, 동으로 호남정맥, 남으로 모악지맥과 만경강, 서로는 서해와 접하고 있다. 북동쪽의 운암산(해발 605m)과 남동쪽의 모악산(해발 794m)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해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발달되어 있으며 강변 충적지와 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충적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된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상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적은 익산 영동동·섬다리·용기리, 전주 성곡·효자4·장동·마진IV, 완주 구암리, 김제 제상리유적 등 9개 유적에서 2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유적별로 살펴보면 익산 영동동유적 6기·용기리유적 4기, 전주 장동유적 4기, 완주 구암리유적 10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면 1) 전북지역 전기 유적 분포현황

1~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 대부분이며,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익산 영등동 II-7호 주거지의 위석식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시설식 노지가 설치되었다. 주혈은 익산 영등동 II-7호 주거지가 2열 9행, 김제 제상리 A-1호 2열 5행으로 초석이 놓여져 있으며, B-1호 주거지는 2열 5행으로 추정된다(김규정 2011, 40쪽). 저장공은 전주 성곡 주거지 2기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 모서리에 치우쳐서 시설이 되어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서부지역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토기가 증가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주 장동 I-9호 주거지에서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공열+구순각목+단사선+이중구연이 결합된 혼암리식토기가, 완주 구암리 4-1호 주거지에서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공열+구순각목이 결합된 역삼동식토기가, 익산 용기리 2호 주거지에서는 공열+구순각목+단사선의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어 앞으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서부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북서부지역 전기주거지 유적

토기 문양	유적명	입지 유형	호수	규모(cm)			면적(m ²)	장단비	내부시설				주요출토유물	특징	
				장축	단축	깊이			노지	벽구	주공	초석			
가 락 동 식	익 산 영 동 동	평 지 구 룡	I-2	436	310	25	13.6	1.4		○			구순각목토기호,이중구연+단사선 문토기편,대팻날		
			I-3	1,072	635	25	68.1	1.68	3	○	○		호, 구순각목심발형토기,절상돌대 심발형토기, 발, 완, 이중구연+단사 선문토기, 석검, 석창, 이단경축, 삼 각만입축, 어망추, 방추차	무시설식노지, 화재폐기	
			I-17	829	645	10	53.4	1.28	1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일단경 축, 석검편, 어망추	무시설식노지	
			I-18	850	574	47	48.8	1.48			○	○		심발형토기, 석부편, 대팻날, 유경식 석축, 석검편	
			II-7	1,790	780	40	139.6	2.3	2	○	○			심발형토기(구순각목문+이중구연 단사선문),홍도,일단·이단경축,삼 각만입축,합인석부,석도,석검,유혈 구이단병식석검	위석식 노지, 장축으로 2열의 柱孔
			III-6	784	236	10	18.5	3.32						저부편	柱孔
	익산 용기리	평지 구룡	3	660	535	35	35.3	1.23	1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토제구 슬, 석창편, 석제편	무시설식노지	
	전 주 성 곡	평 지 구 룡	1	874	452	60	39.5	1.9	○	○	○		호, 심발형토기편, 삼각만입축, 대팻 날, 어망추	무시설식노지, 남서 쪽 모서리 타원형구덩이	
			2	554	462	40	25.5	1.2	○	○	○		심발형토기, 호, 이중구연+단사선 문토기편, 어망추, 대팻날, 주형석 도, 방추차	무시설식노지, 벽구, 북쪽 바닥 柱孔, 수혈, 화재주거지,	
	전 주 장 동	평 지 구 룡	8	880	480?	43?	42.2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마연토 기편, 지석	벽구	
			36	1,058	521	32	55.1	2.03	2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구순각 목심발형토기, 마연토기, 방추차, 석 도, 주형석도, 발화석, 어망추, 환상 석부, 석검편	무시설식노지	
	전 주 마 전 IV	평지 구룡	1	706	413	34	29.1	1.70					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편, 어망추, 지석, 석제편		
	전 주 효 자 4	평지 구룡	5	714	475	24	33.9	1.5	2	○			심발형토기(구순각목문+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저부편, 발화석, 미완석기	무시설식노지, 화재 폐기	
	완 주 구 암 리	산 지 구 룡	1	730?	450?	40	33?	1.6?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대부소 호편, 홍도편, 반월형석도, 연석	무시설식노지	
			6	720?	330?	20	24?	2.2?	○	○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편, 석창편, 석축편, 방추차	무시설식노지	
7			410	350	50	14.4	1.2	○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반월 형석도, 석창, 연석	무시설식노지		

토기문양	유적명	입지유형	호수	규모(cm)			면적(m ²)	장단비	내부시설				주요출토유물	특징
				장축	단축	깊이			노지	벽구	주공	초석		
	김제제상리	평지구릉	A-1	1,120?	864	35	96.8?	1.3?	○	○	○	○	토기편,삼각만입촉,환상석부,대갓날,유단석부편,토제방추차	무시설식노지, 내부 장축 따라 2열의 초석열
			B-1	1,000	370	10	37.0	2.7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석부,이단경축,석제방추차,연석	내부 장축중심부에 1열의 초석열
미사리식	익산섭다리	평지구릉	2	824	432?	18	35.6?	1.7?	○	○	○	○	심발형토기편, 돌대문토기편, 돌유문토기편, 어망추, 석도편	바닥 벽구시설+주열
혼암리식	익산용기리	평지구릉	2	622	526	31	33	1.2	1				구순각목+공열+단사선문 토기, 구순각목문심발형토기, 호형토기편, 어망추2, 석축, 합인석부, 지석, 석제편	무시설식노지, 주열의 정연성 없음, 내부 방형수열
가락동식·혼암리식	전주장동	평지구릉	9	585	427	50	25.0	1.37	1	○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공열토기편,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방추차, 석도	바닥 네벽 벽구
가락동식·역삼동식	완주구암리	산지구릉	4-1	730	310?		23?	2.4?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흉도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편, 구순각목+공열토기편, 반월형석도, 연석, 석축	무시설식노지
구순각목	완주구암리	산지구릉	3	460	330	80	15.2	1.4	○		○		구순각목문토기편, 석착	무시설식노지
			4	600	300?	65	18?	2?	○		○		구순각목문토기편, 국자형토기, 방추차, 연석	무시설식노지
기타	익산용기리	평지구릉	1	860?	360?	11	31?	2.3?	2	○	○		무문토기저부편, 석도3, 석제방추차4, 토제어망추3, 지석, 미완석기, 공이들	주거지 바닥면에 탄화곡물
			4	440	320	25	14.0	1.4	1				지석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중복, 4-6호,先
	완주구암리	산지구릉	2	560	420?	66	24?	1.3?	○		○		석부, 방추차, 연석	무시설식노지
			4-2	430?	320?	20	14?	1.4?			○		무문토기편	
			5	280?	120?	40	34?	2.4?			○		반월형석도, 방추차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은 호남지역에서 지석묘가 가장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며, 일찍부터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서부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동쪽으로 호남정맥이 자리하고 있으며, 비록 큰 하천은 없지만 소하천과 낮은 구릉들이 발달되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金奎正 2006, 1쪽). 특히 중서부지역은 호남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북으로는 금강유역, 남으로는 영산강유역으로부터 문화유입이 용이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전기주거지 유적은 영광 군동유적⁷⁾이 유일하다. 군동유적의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

7) 호남정맥의 끝자락으로 영광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남에 속하지만 대마천의 지류에 해당하는 와탄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마천을 중심으로 고창군과 영광군으로 나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중서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형으로 면적 15m²내외의 소형에 속한다. 내부시설은 대부분 무시설식 노지를 시설하였으며, 정형성이 없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군동 유적에서 확인된 유물은 2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문, 4호 주거지에서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서부지역 전기주거지 유적

토기 문양	유적명	입지 유형	호수	규모(cm)			면적(m ²)	장단비	내부시설				주요출토유물	특징
				장축	단축	깊이			노지	벽구	주공	초석		
구순각목	영광	평지구릉	A-1	448	290	40	13.0?						토기편, 토제어망추, 지석	
			2	444	265	24	11.8	1.7	○	○	○	심발형토기, 구순각목문토기편	무시설식노지	
3			496	300	22	14.88	1.7	○		○	토기편, 지석	무시설식노지		
4			420	324	44	13.60	1.3			○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5			376	296	47	11.1	1.27	○			심발형토기, 토기편	무시설식노지		

3) 동부내륙지역

동부내륙지역은 동쪽의 백두대간과 서쪽의 호남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정맥에 의해 북쪽은 금강수계, 남쪽은 섬진강수계로 나뉜다. 금강상류지역에서는 전기주거지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섬진강상류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금강상류지역의 경우 여의곡, 구곡, 안자동 등 대규모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안자천 일대의 단독지석묘의 경우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호, 발형토기 비중이 높으며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이 출토되었다. 그 시기편년은 무문토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10~9세기에 축조된 것(김승욱 2004, 73쪽)으로 보아 지석묘를 축조했던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인 주거지도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동부내륙지역에서 조사된 전기주거지 유적은 순창 원촌유적과 남원 고죽동유적 등 2개 유적 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유적별로 살펴보면 순창 원촌 1기, 남원 고죽동 2기가 확인되었다. 순창 원촌유적은 평면형태 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를 시설하였다. 유물은 돌대가 구연을 일주하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런 전형적인 미사리식 주거지는 호남지역에서는 최초의 예라 할 수 있다. 남원 고죽동유적에는 가락동식토기·역삼동·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동부내륙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동부내륙지역 전기주거지 유적

토기문양	유적명	입지유형	호수	규모(cm)			면적(㎡)	장단비	내부시설				주요출토유물	특징
				장축	단축	깊이			노지	벽구	주공	초석		
미사리식	순창원촌	층적대지	1	682	680	10	46.4	1.0	○		○	돌대각목문토기편, 직구옹편, 고배편, 대팻날, 석제·토제어망추	중앙에 남북 108cm×동서86cm의 석상위석식노지	
가락동식·역삼동·혼암리식	남원고죽동	산지구릉	1	1,140	450	60	51.3	2.53				이중구연+단사선, 공열토기, 공열+구순각목, 공열+단사선, 공역+단사선+이중구연, 반월석도, 석축, 석착, 지석, 방추차, 삼각만입, 이단경축	화재폐기, 군데군데 불탄 단단한 소토와 집중적으로 불에 탄 혼적	

2. 유물의 검토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서 磨製技術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靑銅器를 제작할 수 있는 專門匠人이 등장하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제작·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農耕을 통하여 안정된 식량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곡식의 저장은 밭이나 논에서 추수하여 걷어 들인 곡식을 일상용으로 먹기 위해 저장하기도 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특별히 종자도 보관해야 했으며, 동물의 침입을 막거나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같은 별도의 저장시설도 고안되었다(북천박물관 2005). 전북지역 전기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토기류와 석기류로 구분된다. 토기는 제작 빈도가 높아 시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토기의 특성상 다른 유물에 비해 편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문토기 형식이 특정 시기를 대표 할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기 무문토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종류가 다양하면서 변화를 보이는 문양이라는 요소는 편년의 주요한 속성이 될 수 있다.

토기는 용도에 따라 기형이 점차 분화되어 다양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같은 형태에서 크기가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토기는 시간의 변화에 민감하여 다른 유물에 비해 편년에 용이하여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용 토기는 일상의 생활패턴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기 때문에 교체되기가 어렵고, 그럴만한 생계방식의 변화나 상징성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전통적인 토기가 그대로 제작·사용 된다⁸⁾. 따라서 토기를 제작한 집단마다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북지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는 크게 壺와 深鉢形土器로 구분된다. 호형토기

8) 安在皓, 2009, 「南韓靑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p.55쪽.

는 저장용기로, 발형토기는 조리와 식사용으로 용도가 분화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1) 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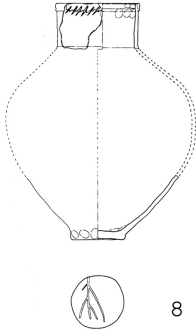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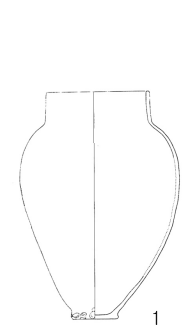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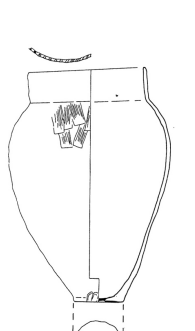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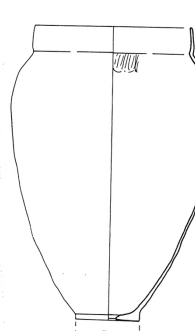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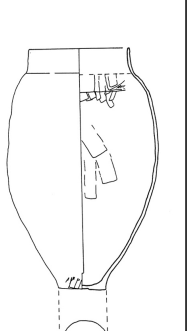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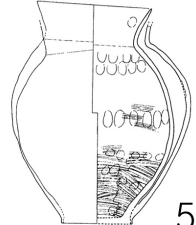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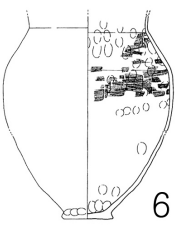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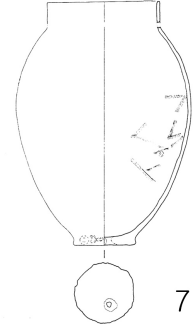
壺는 형태적인 특성 만으로만 보면 여타 기형에 비해 저장성이 한층 고려된 기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朴淳發 2001, 125쪽). 영등동 I-3호 주거지 출토위치를 보면 壺는 주거지의 서쪽에 있는 노지부에서 출토가 되었다. I-1호 주거지⁹⁾출토 壺는 토기 안에 곡물이 출토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바닥면에 반쯤 묻혀있는 상태로 출토 되어 저장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기 주거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고상건물지가 보급되지 않았던 전기에 비교적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북천박물관 2005, 50쪽).

호남북서부지역 전기주거지에서 출토되는 壺는 직립·외경구연을 갖는 대형호이다. 호가 출토된 유적은 영등동 I-3호(기고 49.7cm), 성곡 1·2호(기고 39.0cm)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모두 무시설식노지를 갖춘 가락동유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호형토기는 가락동유형과 함께 등장한 후,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역삼동·혼암리유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李弘鍾·許義行, 2010, 119쪽). 익산 용기리 2호 주거지에서 혼암리식 토기VIc(구순각목+공열+단사선문 토기)와 구순각목문심발형토기편과 함께 호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호는 직립구연에 목이 짧아지고 동체는 동최대경이 동체 중위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익산 영등동 I-3호 주거지보다 늦은 단계로 추정된다.

호의 구순부는 각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인된다. 외경구연호는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외반구연토기와는 다른 것으로, 동체부와 경부의 구분이 뚜렷하게 꺾이고 있으며, 구경부의 길이도 긴 편이다. 대형의 호는 일반적으로 경부형태가 직립에서 외반으로, 경부길이가 장경에서 단경으로, 동최대경의 위치가 중상위에서 중위로 변화됨을 알 수 있고, 직립하는 구연부가 서서히 외반하며, 목과 동체부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였다(안재호 1991).

도면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호남지역에서는 다양한 호가 출토되고 있다. 호는 구연과 견부,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속성분류가 가능한데 담양 성산리 출토품의 경우 구연과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고 동체는 구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구연부는 이중구연단사선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등동 1-3호 출토품과 익산 석천리 옹관과 같이 구연부와 동체의 구분이 뚜렷하고 견부가 명확하며 최대경이 동

9) 개간 등으로 인해 주거지 윤곽선이 전체적으로 삭평되어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

I 단계	 <p>8</p>			
II 단계	 <p>1</p>	 <p>2</p>	 <p>3</p>	 <p>4</p>
III 단계	 <p>5</p>	 <p>6</p>		
IV 단계	 <p>7</p>			

도면 2) 호남지역 전기 호(1/10)

(1. 익산 영등동 1-3주, 2~4. 익산 석천리 옹관묘, 5. 전주 성곡 1주, 6. 전주 성곡 2주, 7. 익산 울촌리 옹관묘, 8. 담양 성산리 수혈)

체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토기에서는 구순각목이 시문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기는 구연부에 문양을 시문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주 성곡 출토품과 같이 구연과 동체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동최대경이 서서히 중위로 내려오고 구연은 외반화되는 경향으로 변화한다. 다음은 구연은 직립하지만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장란형으로 동체로 변화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북지역 출토 무문토기 호의 경우 구연부는 긴것에서 짧게, 직립에서 외반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견부는 뚜렷한 것에서 완만하게 연결되며 동최대경은 상위에서 중위로 내려오며 최후에는 장란형의 동체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深鉢形土器

심발형토기는 전기 주거지에서 그 출토수가 가장 많고 이른 시기의 심발형토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유문양에서 무문양 토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민정 2003, 41쪽).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심발의 경우 저부에서 한번 축약이 심하게 이루어지며 동체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에서 안으로 내경하는 형태가 있다. 송국리형주거지에서 출토된 심발은 저부의 축약이 없이 바닥면에서 바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동체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서서히 좁아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심발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전기의 발형토기 속성이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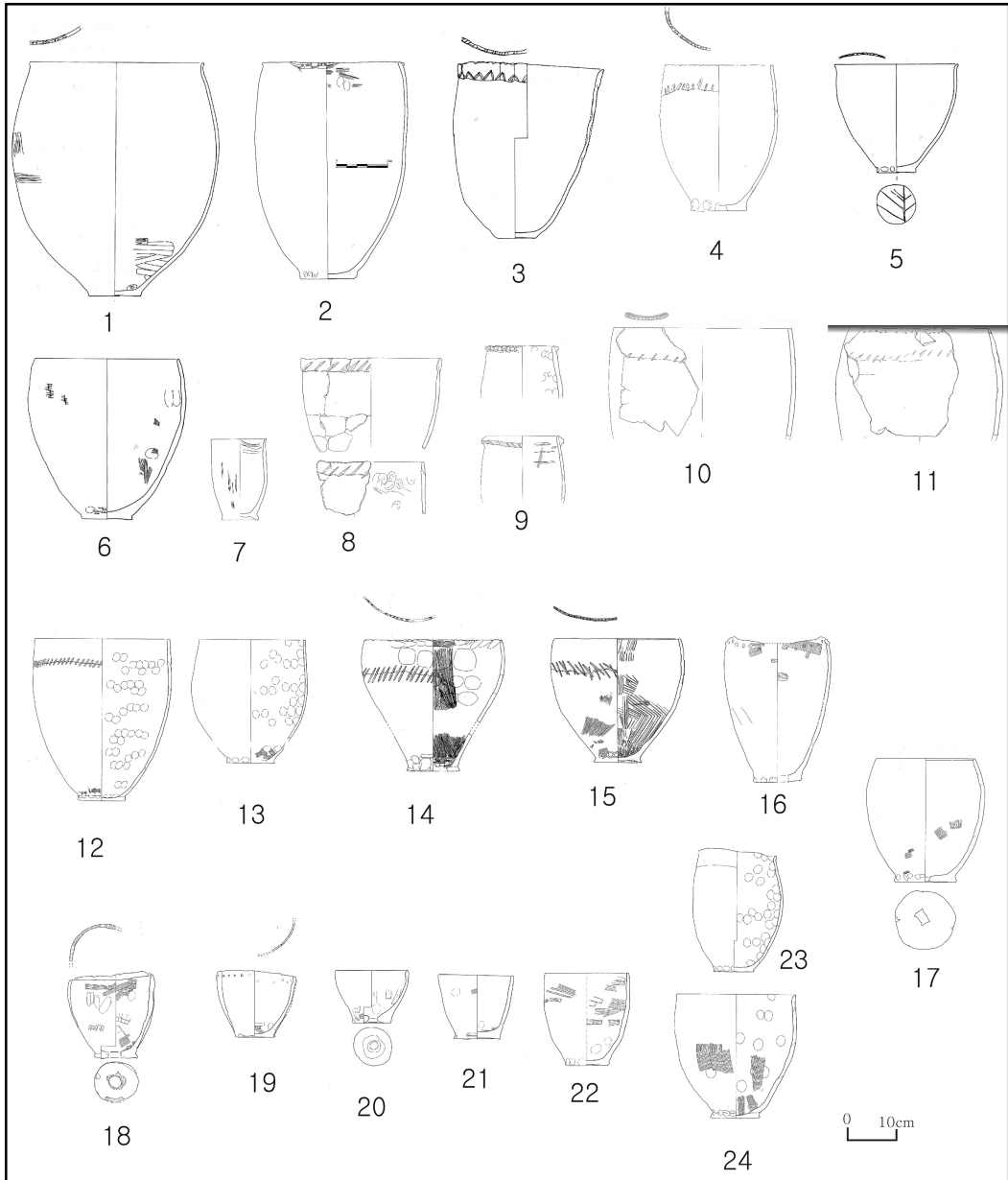
전북지역에서 출토되는 심발형토기는 무문양과 유문양이 동시에 출토 되는데 유문양의 경우는 공열문·구순각목문·이중구연단사선문이 단독, 혹은 복합으로 시문되어 확인된다.

3) 토기문양의 변천

토기의 형식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편년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것이 문양이다(李弘鍾·許義行, 2010, 125쪽). 토기문양의 형식 분류는 곧 시간적인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문토기 문양에서도 개개문양 자체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양의 조합형태가 시간성을 반영한다¹⁰⁾. 즉, 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미사리유형을 조기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열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 이들 두 가지 문양이 결합된 혼암리유형을 전기 외반구연의 송국리식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송국리유형을 후기로 구분(한국청동기학회 2007)하고 있다.

문양에 따른 형식 분류는 동일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규정(2010, 2011), 홍밖음(2010)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하였다.

10)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 『嶺南考古學』44, 嶺南考古學會.



도면 3) 호남지역 전기 심발형토기(1/10)

(1, 익산 영등동 I-1주, 2,5,7, 익산 영등동 I-3주, 3, 익산 영등동 II-7주, 4, 전주 효자(4) I-5주, 6, 전주 성곡 2주, 8, 익산 영등동 I-17주, 9, 순창 원촌 1주, 10,11, 남원 고죽동 1주, 12,13, 광주 산정동 2주, 14, 강진 호산, 15, 광주 동림동 저습지, 16, 구례 봉북리, 17, 영광 군동 2주, 18-22, 구례 봉북리 2호 야외노지, 23,24 광주 산정동 1주)

문양속성에 따라

· 돌대문토기(미사리식토기)를 I 식: 다시 돌대의 부착방법에 따라 돌대가 구연을 일주하는 a식, 일주하지 않고 끊어지는 절상돌대나 계관형돌대를 b식

- 이중구연토기(가락동식토기)를 II식: 이중구연을 a식, 이중구연+단사선을 b식,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을 c식, 단사선을 d식, 이중구연+거치문+구순각목 e식
 - 공열토기(역삼동식토기)를 III식: 순수 공열을 a식, 공열+구순각목인 b식
 - 복합문토기(혼암리식토기)를 IV식: 공열+구순각목+단사선은 a식, 공열+구순각목+단사선+이중구연은 b식, 공열+단사선은 c식, 공열+단사선+이중구연은 d식
- 구순각목은 V식으로 분류하여 호남지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문양 속성은 표 4) 와 같다.

표 4. 전북지역 전기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문양분류

지역구분	유적	유구	미사리식		가락동식					역삼동식		혼암리식				구순각목	주거지 평면형태		
			I a	I b	IIa	IIb	IIc	IId	IIe	IIIa	IIIb	VIa	VIb	VIc	VId			V	
북서부	익산 영등동	I-2					●									◇	방형		
		I-3		☆		●			●								◇	장방형	
		I-17					●											방형	
		II-7				●				●								장방형	
	익산 용기리	2											□				◇	방형	
		3				●												방형	
	익산 섬다리	2		☆		●												장방형	
	김제 제상리	B-1								●								장방형	
	전주 성곡	2				●												장방형	
	전주 효자(4)	I-5						●										장방형	
		I-8					●											장방형	
		I-9					●	●						□				장방형	
	전주 장동	I-35					●										◇	장방형	
		완주 구암리	1				●												방형?
			3															◇	방형
			4															◇	장방형?
4-1							●	●					▽					장방형?	
6							●											장방형?	
7						●											방형		
중서부	영광 군동	A-2					●										◇	장방형	
		A-4					●											장방형	
동부내륙	남원 고죽동	1					●				▽		□		□			세장방형	
		2							●?									세장방형	
	순창 원촌	10		☆														방형	

표4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서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은 주로 가락동식토기, 동부내륙지역은 역삼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다.

IV.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문토기의 특징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연대는 조사유적이 많지 않고 절대연대 자료가 부족해 유물의 분류를 통한 형식학적 방법과 순서배열법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호남지역에서도 전기유적의 조사가 증가하고 절대연대 자료 또한 늘어나면서 절대연대를 전기유적의 편년자료로 이용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절대연대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지만, 선사시대의 연구에 있어 상대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연대와 함께 절대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¹¹⁾. 현재까지 조사된 전북지역 전기 유적의 절대연대 측정 결과는 表 5와 같다.

표 5. 전북지역 전기 유적 절대연대 측정자료(김규정, 2011 참고)

지역	유적	유구	토기 형식	BP				BC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북서부	전주 장동	I-9住	IIb·c, VIIb	3080±80				1520or1110			
	익산 섬다리	2住	I b	2720±60	2860±50			865	1045		

전북지역 전기 유적 절대연대를 살펴보면, 전주 장동 9호 주거지 3080±80BP, 익산 섬다리 2호 주거지 2720±60BP·2860±50BP로 절대연대로 보면 장동 9호 주거지가 기원전 12세기 이전, 익산 섬다리 2호 주거지가 각각 기원전 11세기와 기원전 9세기로 볼 수 있다. 출토 유물은 장동 9호 주거지는 IIb·c식 가락동식 토기와 VIIb식 혼암리식 토기가 공반된다. 익산 섬다리 2호 주거지는 Ib식 미사리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전기무문토기를 대표하는 기형은 호와 심발형토기로 공반관계가 명확한 것은 영등동 I-3호 주거지 출토품이 유일하다. 호의 경우 구연부가 길고 건부가 뚜렷하며 동최대경이 동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구연부에 문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석천리 옹관과 비교된다. 호와 공반된 심발형토기는 절상돌대문이 시문된 심발과 구순각목이 시문된 심발로 절상돌대문토기는 대체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반되고 있어 전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전주 성곡 출토 호의 경우 동최대경이 동체 중위로 내려오고 구연은 외반화 되며 공반된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반된다. 이중구연단사선의 경우 편으로 출토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퇴화이중구연토기에 가깝다.

11) 金奎正, 2011, 「湖南地域 青銅器時代前期文化의 特徵」, 『韓國青銅器學報』9, 韓國青銅器學會, 48쪽.

출토유물 중 시간적 속성과악에 용이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로 볼 때 지금까지 확인된 전기의 문화양상은 호남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남지역 중앙부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호남정맥에 의해 서부지역은 가락동식토기 문화권, 동부지역은 역삼동식·혼암리식토기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규정 2010). 이는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의 입지에 있어 초기에는 주로 강변 충적지에 입지하지만, 전기에는 산지와 구릉으로 입지가 확대되면서 취락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생계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의미한다. 곧, 가락동식토기 문화집단은 주로 낮은 구릉과 하천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선호한 반면 역삼동식토기 문화 집단은 높은 산에서 뺀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입지하는 유형으로 주변에는 곡간평지가 형성되어 있는 충적지를 선호 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전북지역은 아직까지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조사가 많지 않지만, 최근 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연구가 좀 더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무문토기는 주거지와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모두 3기(김규정 2011)로 분류 가능하다.

I 기는 현재 전북지역은 자료가 많지 않아 초기와 전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각목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미사리유형과 이중구연단사선문을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식유형이 있다. 각목돌대문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미사리유형은 섬진강상류인 동부내륙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순창 원촌유적이 유일하다. 가락동식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식유형은 북서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각목돌대문토기는 강변 충적지와 구릉상에 입지하며,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에 석상위 석식 노지를 갖추고 있고 돌대가 구연을 一週하는 형식은 순창 원촌 유적이 유일하다. 미사리유형의 입지가 대부분 강변 충적지에 위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변 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다. 그러나 서부평야지역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의 본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변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증가 한다면 미사리유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락동식유형은 익산 영등동 I-17호 출토 이중구연단사선문을 표지(김규정 2011)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구조에 있어서 II-7호 주거지와 유물조합상으로 보았을 때 가락동유형의 전형(이형원 2009 10쪽)으로 볼 수 있지만, 이중구연단사선문 심발형토기에서 차이가 난다. I-17호 주거지의 심발형토기는 구연부에 점토를 덧붙이는 전형적인 이중구연

성형방법에 단사선문이 결합(김병섭 2009)된 토기이고, II-7호 주거지 출토 심발형토기는 구연부에 구연부의 접합흔적을 단상으로 뚜렷하게 남겨 입체감 있도록 한 유사이중구연1에 거치문과 구순각목을 결합한 토기이며,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을 결합한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김제 제삼리 B-1호 주거지에서는 세장방형의 무시설식 노지와 초석열을 갖춘 주거지와 전형적인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II기는 가락동식유형의 확산과 함께 역삼동유형과 혼암리형유형의 등장이다.

가락동식유형은 금강·만경강과 동진강유역을 중심으로 등장하다 내륙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역삼동유형과 혼암리형유형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크기가 감소하며, 내부에 설치된 무시설식노지의 수가 감소하거나 늘어난다. 가락동식토기의 경우 이중구연의 요소가 퇴화하지만, 아직까지 이중구연의 요소는 남아있다. 일부의 경우 구순각목문이 나타난다(김규정 2011, 50쪽). 주목할 만한 것은, 익산 영등동 I-3호는 장방형주거지에서 무시설식노지와 Ib식 절상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직립구연호, 구순각목토기, 가락동식토기, 삼각만입축 등이 출토되었다. 최근 조사된 익산 섬다리유적에서도 장방형 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고, Ib식 절상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미사리유형으로도 올려 볼 가능성도 있지만, 공반유물을 살펴보았을 때, 영등동 I-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흑색마연완은 강릉 교동 등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완과 유사한 완이 출토되고, 이중구연+거치문+구순각목문 토기편의 이중구연은 퇴화되어 띠가 약하게 단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가락동유형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미사리유형과의 접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가락동 유형 취락의 중심 분포권인 금강중류 일원에서는 미사리 유형과 가락동 유형의 선후관계에 있어 오히려 가락동 유형이 미사리 유형에 선행하는데 가락동 유형에 시차를 두고 미사리 유형 취락이 출현한다¹²⁾.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혼암리식 토기가 등장하는 유적은 익산 용기리, 전주 장동유적이 있으며,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역삼동식토기가 등장하는 유적은 완주 구암리유적이 있다. 절대연대 자료를 볼 때 장동 9호 주거지가 기원전 12세기 이전, 익산 섬다리 2호 주거지가 각각 기원전 11세기와 기원전 9세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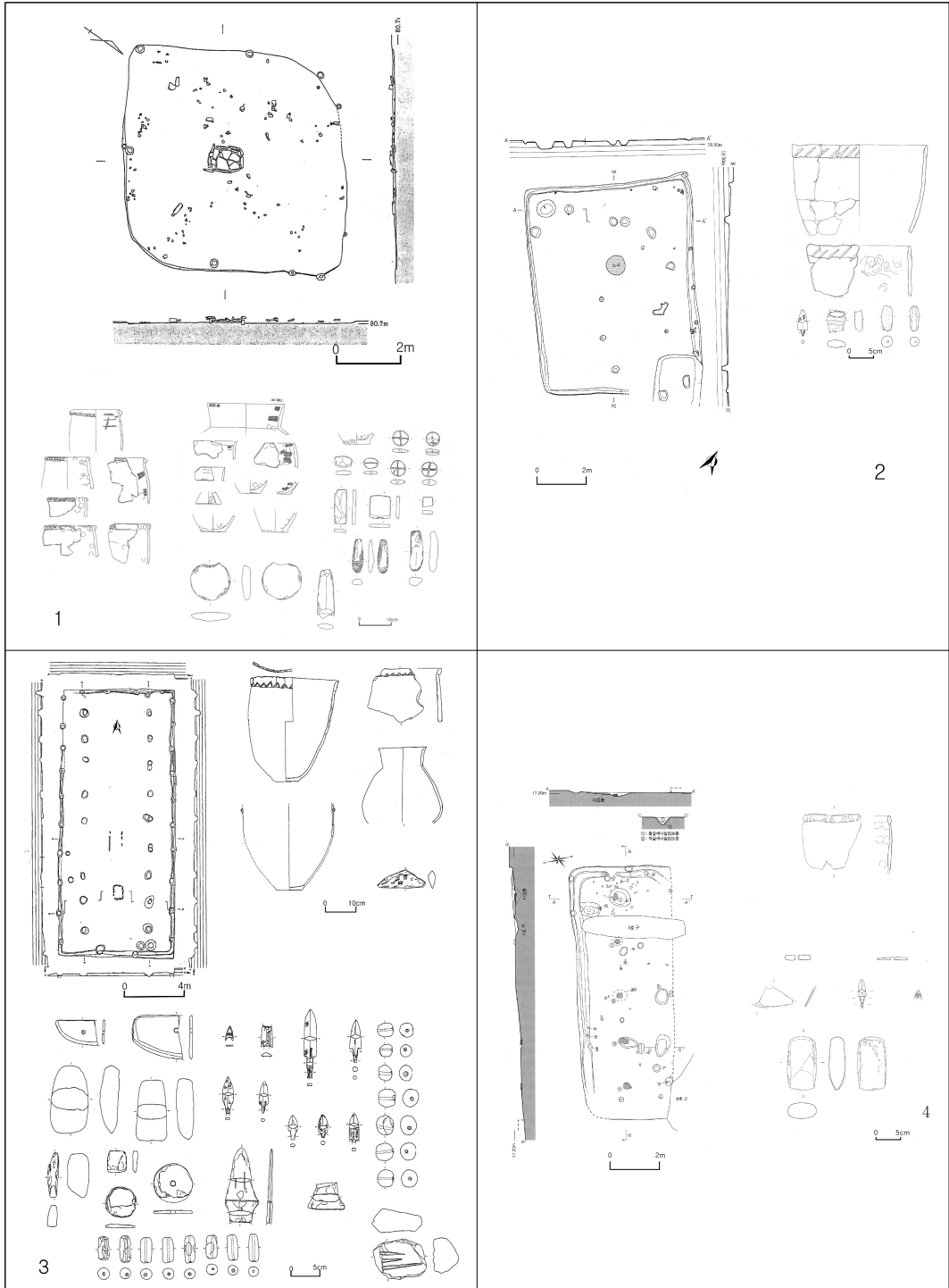
III기는 전기 주거지의 분화와 송국리유형의 형성시기와 맞물린다. 이 시기에 주거지에서 형태변화가 일어나는데, 장방형 주거지의 면적이 줄어들어 방형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노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적은 익산 영등동 I-2호, I-18호, 전주 성곡, 영광 군동에서 확인이 된다. 출토유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중구연의 요소는 완전히 퇴화되어

12) 孔敏奎,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 『韓國靑銅器學報』8號, 韓國靑銅器學會, p.57쪽.

이중구연의 요소가 희미하게 선상으로 남겨져 입체감 없는 유사이중구연 2(김병섭 2009)로 변한다. 또한, 무문양토기가 증가한다. 이시기에 호의 형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목이 비교적 긴 외반구연호가 등장한다. 발형토기의 경우에는 전기적인 요소를 아직 지니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구순에 각목문을 시문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후반의 늦은 단계로 들어서면 새로운 형식의 주거지가 등장하게 된다. 새로운 형식의 송국리유형의 등장인데 송국리유형의 출현으로 전기 문화의 분화·쇠퇴를 부른다. 평면 형태에 있어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되며 전기후반의 늦은 단계에는 주거지 규모의 소형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지면서 방형으로 변화된다. 후기주거지는 전기의 장방형주거지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주거 규모의 소형화, 규격화가 이루어지면서 휴암리식 방형주거지가 등장하고, 거의 동시기에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등장하여 전북지역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 형태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방형에서 차츰 말각방형화되며, 말각방형과 함께 원형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평면 형태에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타원형구덩이도 방형주거지에서는 정형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각방형주거지로 변화되면서 타원형구덩이가 타원형으로 정형성을 갖추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부내륙지역인 금강상류유역권과 섬진강상류유역권은 후기에 송국리형주거지가 축조되지만 출토유물은 전기의 특징적인 역삼동식 공열토기가 출토된다. 이는 재지의 무문토기 집단이 송국리문화의 일부 요소인 송국리형주거지를 채용하였으나 그들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무문토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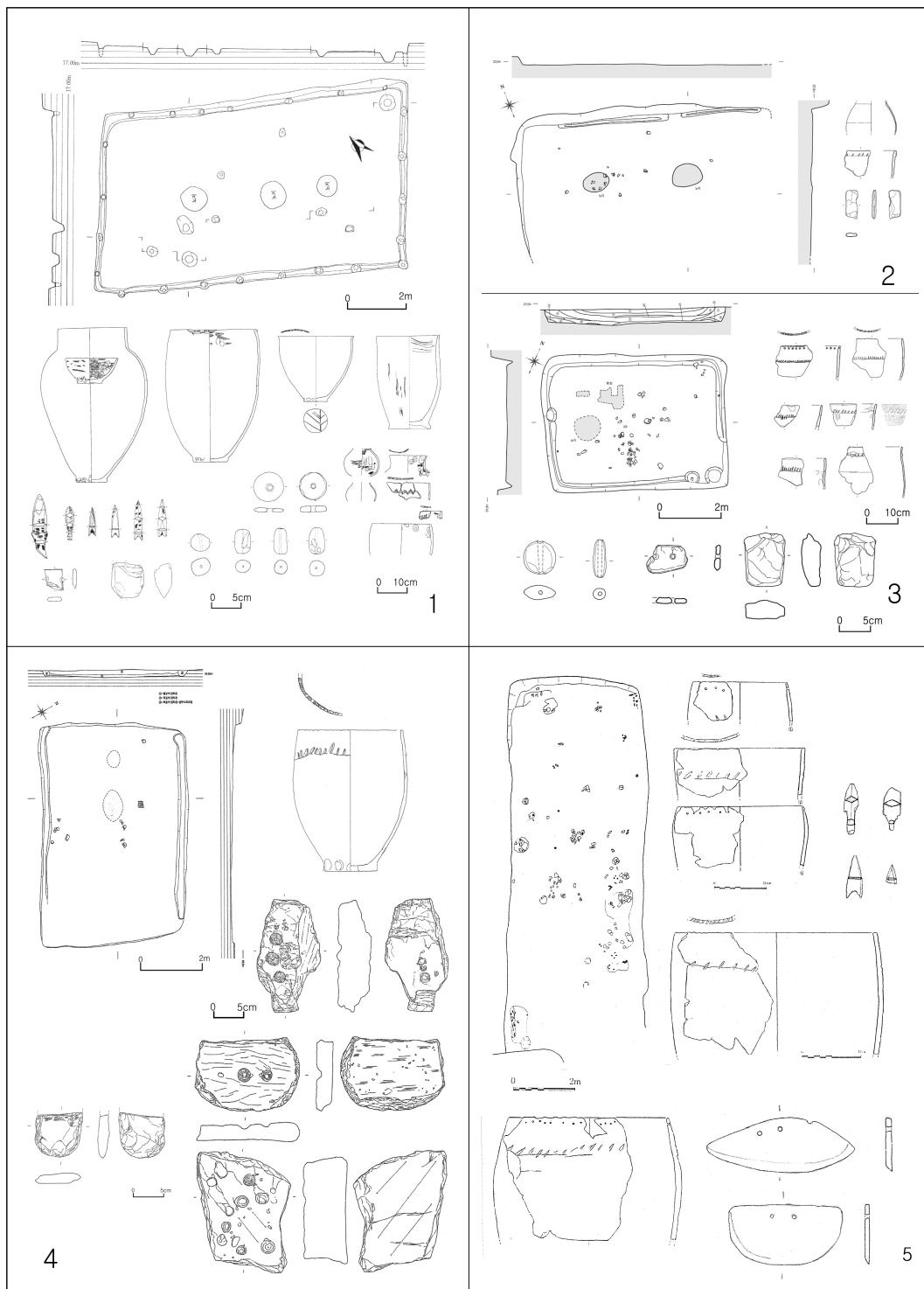
표 5) 전북지역 전기주거지 편년표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I기	I기	II기	I기	II기
유적	원촌 1호	영등동 I-17호, 영등동 II-7호, 제상리 B-1호	영등동 I-2호· I-3호, 효자(4) 5호, 전주 성곡, 영광 군동	남원 고죽동 1호, 전주 장동	익산 용기리, 완주 구암리
주거지	방형 석상위석식노지	장방형, 단수무시설식노지, 복수위석식노지, 복수의 무시설식노지, 柱기둥 2열	(세)장방형중심, 방형 복수위석식노지· 무시설식노지	장방형 무시설식노지	방형, 무시설식노지,
토기	돌대각목토기	심발, 호, 이중구연+단사선(전형, 右上左下 시문), 심발, 호, *영등동 II-7호-적색마연호, 파수부토기, 직립구연호, 완	이중구연 퇴화, 소별, 구순각목 외반구연토기 중심, I-3호-절상돌대심발 * 광주 동림동, 강진 호산 단사선만 강조된 토기		공열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석기		유혈구이단병식석검, 일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이단· 일단경촉, 주형석도	삼각만입촉, 장주형석도	장주형석도,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합인석부, 일단경촉
시기	조기전반	전기전반	전기후반	전기중반	전기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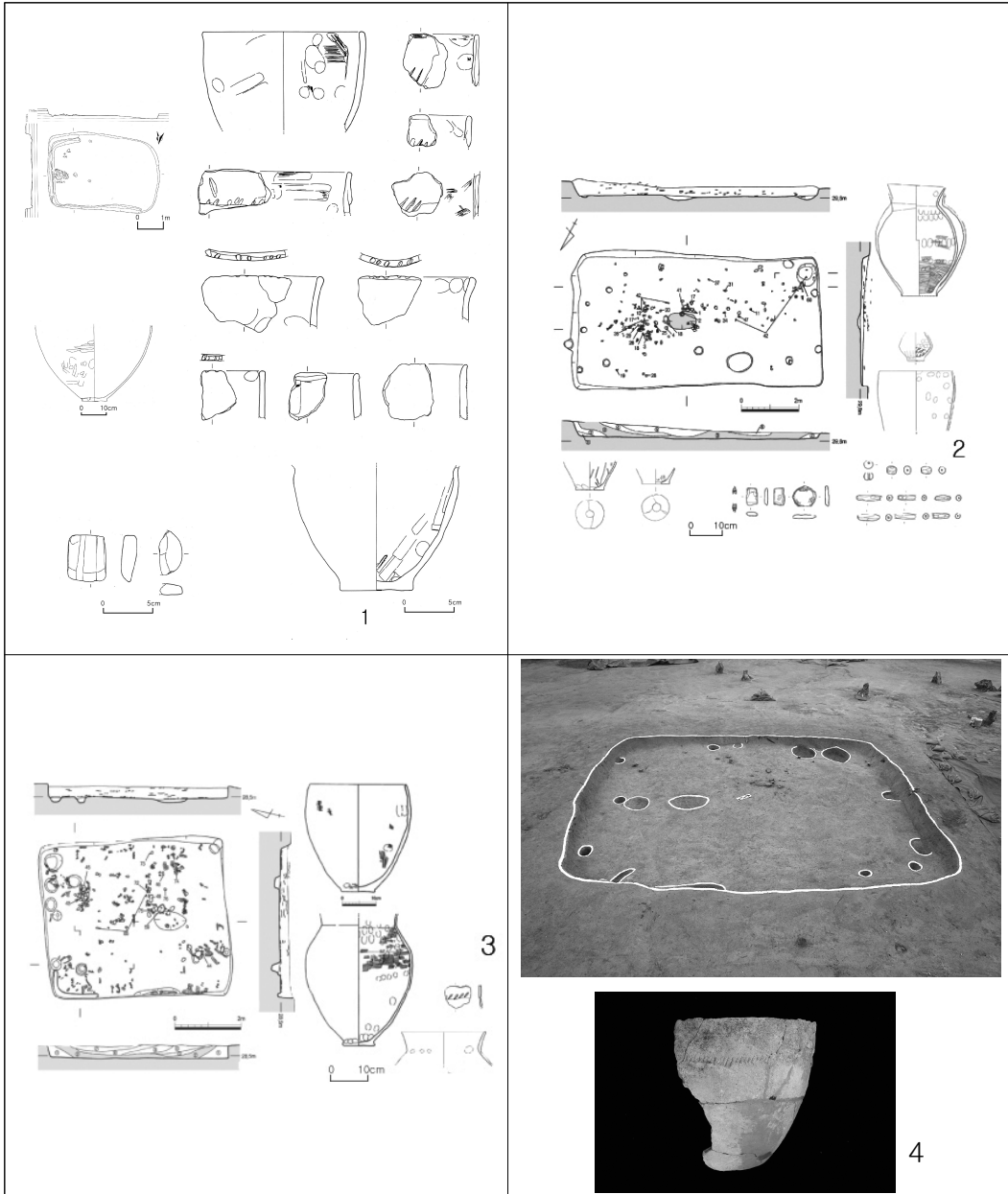
도면 4)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1기 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

(1. 순창 원촌 2. 익산 영등동 I-7주, 3. 익산 영등동 II-7주, 4. 익산 제상리 B-1주)



도면 5)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II기 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

(1. 익산 영등동 1-3주, 2. 전주 장동 8주, 3. 전주 장동 9주, 4. 전주 효자(4) 5주, 5. 남원 고죽동 1주)



도면 6) 전북지역 청동기시대 III기 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

(1. 익산 영등동 1-2주, 2. 전주 성곡 1주, 3. 전주 성곡 2주, 4. 익산 용기리 3주)

참고문헌

〈報告書〉

- 곽장근·조인진·조명일·신소미·이현석, 2011, 「완주 구암리 유적」 『2010·2011 호남지역문화유적발굴조사성과』, 호남고고학회.
- 金建洙·金永熙, 2004, 『潭陽 城山里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 金建洙·李暎澈·李永德, 2005, 『扶安 格下貝塚』, 湖南文化財研究院.
- 金承玉·李宗哲, 2001, 『鎭安 龍潭堰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VIII -如意谷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
- 金貞愛 2007 『求禮 鳳北里 遺蹟』, 馬韓文化財研究院.
- 金鐘文·金奎正·金大聖, 2007, 『全州 孝子 4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 김승욱·이종철·김은정, 2001, 『鎭安 龍潭堰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IX-農山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
- 박영민·고금남·전지호·정인숙, 2009, 『全州 長洞 遺蹟II-1구역-』 전북문화재연구원.
- 申大坤·金圭東, 2001, 『鎭安 龍潭堰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III』, 國立全州博物館.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5, 『익산 신동리 간이골프장 시설부지 내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97, 『南原 高竹洞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崔完奎·金鍾文·金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 2001, 『영광 군동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韓修英·李永德·申元才, 2005, 『淳昌 院村·官坪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全州 聖谷遺蹟』.
- _____, 2009, 『金堤 大靑里·堤上里遺蹟』.
- _____, 2011, 『益山 慕縣洞 2街 遺蹟』.

〈論文〉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문화의 變遷』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高旻廷·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 『靑銅器學報』2.
- 孔敏奎, 2003, 『무문토기문화 가락동유형의 성립과 전개』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韓國青銅器學報』8號, 韓國青銅器學會.
- 金權中, 2005,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龍岩里 泉田里 遺蹟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규정, 2006, 「無文土器 甕棺墓 檢討」『先史와 古代』25, 韓國古代學會.
- _____, 2009, 「호남지역 무문토기 생산과 유통의 문제」, 『호남고고학에서 바라본 생산과 유통』, 湖南考古學會.
- _____, 2010,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 研究」, 『日韓集落研究の新たな視角を求めて』, 韓日聚落研究會.
- _____, 2011a, 「새만금권역의 청동기문화」, 『새만금권역의 고고학』, 湖南考古學會.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青銅器學報』4, 韓國青銅器學會.
- 金奎正, 2011, 「湖南地域 青銅器時代前期文化의 特徵」, 『韓國青銅器學報』9, 韓國青銅器學會.
- 金承玉, 2004, 「龍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社會組織과 變遷科程」, 『湖南考古學報』19, 湖南考古學會.
- 宋永鎭, 2006, 「嶺南半島 南部地域의 赤色磨研土器 研究」, 『嶺南考古學』38, 嶺南考古學會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梁英珠, 2009, 『湖南中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의 變化樣相』,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9, 『韓國 青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弘鍾·許義行, 2010, 「湖西地域 無文土器의 變化와 編年」『湖西考古學』23, 湖西考古學會.
- 許義行, 2006, 『無文土器時代 聚落立地와 生計經濟研究-천안 및 아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一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홍밖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문토기의 편년 및 검토」, 『전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식 설정』, 2010년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